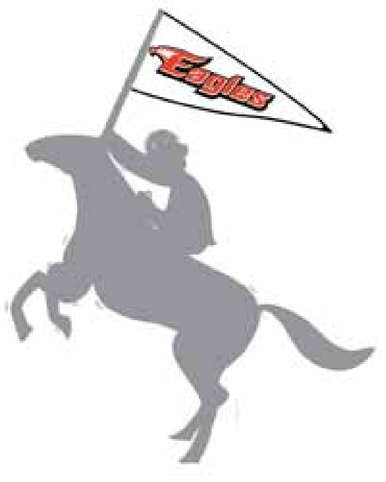

KIA·롯데 양강이냐… 한화와 3파전이냐

5강 싸움 '점입가경'

2015 TIRE BANK KBO LEAGUE

에반

KIA, 1.5게임차 한화와 홈 2연전

최영필·심동섭 등 불펜 믿음직…에반도 컴백
선발 스틴슨…테이블 세터 합류 오준혁 기대
한화 공포타선 막고 과부하 걸린 마운드 공략

프로야구 잔여경기 일정이 시작되는 15일 5강 싸움의 판도가 바뀐다. 오뚝이처럼 2015시즌을 보내면서 5위 롯데에 이어 승차 없는 6위를 유지하고 있는 KIA와 1.5게임차 밖까지 물러났지만 여전한 5강 후보 한화가 격돌한다. 챔피언스필드가 전쟁터다.

스틴슨(KIA)과 김민우(한화)가 맞붙는 이날 경기에 따라서 두 팀의 격차는 2.5게임차까지 벌어질 수 있다. 15일 경기 포함 14경기밖에 남지 않은 한화에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되는 것이다. KIA가 한화에게 승을 내줄 경우에는 0.5게임차로 추격을 당하게 된다. 16일 시즌 최종전을 치르게 되는 두 팀의 표정은 15일 경기에 따라서 달라진 전망이다. 롯데와 KIA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느냐, 잠시 정체됐던 삼파전이 다시 전개되느냐가 걸린 혈전이다.

KIA의 믿을 구석은 불펜이다. 마무리 윤석민이 27세이브로 팀 최다 세이브 기록을 넘어 17년 만에 타이거즈 30세이브에 도전하고 있고, 좌완 심동섭의 눈부신 피칭이 이어지고 있다. 베테랑 최영필과 김광수의 노련미에 안정세로 돌아선 한승혁의 파워가 곁들여져 불펜에 힘이 붙었다. 부상으로 빠졌던 외국인 선수 에반도 돌아온다.

반대로 한화의 불펜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국가대표 테이블 세터' 출신의 이용규·정근우에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경언, 묵직한 4번 타자 김태균, 힘붙은 최진행까지 한화의 타선은 무시무시하다. 그러나 불펜의 과부화 속에 마운드 전체 구성이 틀어지면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KIA는 선발의 힘으로 버티고, 허술해진 상대 불펜을 뚫어야 한다.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던 양현종 대신 스틴슨이 선발로 나서 기싸움을 벌인다. 스틴슨은 앞선 NC전에서 모처럼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하며 4수 끝에 11승을 챙겼다. 새로 구성된 좌타자 테이블 세터진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다. 김민우와 '최고령 테이블 세터'를 구성했던 신종길이 체력이 떨어진 김민우를 대신해 오준혁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오준혁은 자신의 틀을 깨면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187㎝의 장신인 오준혁은 타격시 스탠스를 줄이고 상체를 세웠다. 늦은 스윙은 빠른 대처로 만회했다. 오준혁의 재능을 알아본 1·2군의 감독과 타격코치의 조언을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인 결과다.

오준혁은 "키가 커서 몸을 숙여야 낮은 볼을 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타격 폼을 바꿨는데 그렇지 않았다. 또 스윙이 늦게 나간다면서 감독님께서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두고 치라고 하셨다. 상대 투수가 발을 들 때 같이 타격 준비를 하고 있다. 2군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감사하다. 꾸준하게 잘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KIA는 한화와의 빅매치 이후 17일 '고춧가루 부대' kt와 안방에서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갖는다. 18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에는 인천으로 올라가 19일(토)부터 21일(월)까지 SK와 원정 3연전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준혁

역전발판 강정호

7회 동점타·10회 병살 수비
피츠버그 연장 끝내기승

'킹캉'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추격의 물꼬를 트는 안타와 동점 적시타를 날리며 팀의 역전승에 큰 힘을 보탰다.

강정호는 13일(현지시간)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서 4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 5타수 2안타를 치고 타점과 득점을 1개씩 올렸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90(411타수 119안타)으로 올랐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에 도전하는 2위 피츠버그는 6-6이던 연장 11회말 1사 2·3루에서 터진 조시 해리슨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3연승을 달렸다. 지구 선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승차는 2.5경기다.

2회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강정호는 1-6으로 뒤진 4회 1사 후 두 번째 타석에서 깨끗한 안타로 추격의 불을 댕겼다. 그는 밀워키 우완 테일러 영맨의 시속 146㎞짜리 빠른 볼을 잡아당겨 좌전 안타로 포문을 열었다. 두 명의 후속타자가 연속 볼넷을 얻은 덕분에 3루에 안착한 강정호는 트래비스 스나이더의 좌선상 2루타 때 홈을 밟았다. 피츠버그는 조디 머서의 희생플라이를 합쳐 3점을 뽑아내며 4-6으로 따라붙었다.

6회 삼진으로 돌아선 강정호에게 7회 기회가 찾아왔다. 실책과 안타로 잡은 1사 1·3루에서 앤드루 매커천이 5-6으로 추격하는 우전 적시타를 날리자 강정호가 계속된 1사 1·2루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1타점 좌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강정호는 볼 카운트 2볼 0스트라이크에서 밀워키의 우완 강속구 구원 투수 제프리 제러미스의 시속 153㎞의 빠른 볼을 끌어당겨 다시 좌익수 앞으로 뻗어가는 안타를 보냈다. 올해 36번째 멀티 히트로 강정호는 시즌 58번째 타점을 장식했다.

강정호는 연장 10회 수비 때는 무사 1루에서 셰인 피터슨의 직선타를 잘 잡은 뒤 재빨리 1루에 송구, 귀루하지 못한 주자를 잡아내며 병살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FA 일정 연기
'프리미어12' 끝난 후로

KBO가 자유계약선수(FA) 협상, 2차 드래프트 개최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한국시리즈 종료 직후 열리는 프리미어 12 때문이다.

KBO는 한국시리즈 종료 5일 후에 FA 자격 선수를 공시하고, 해당 선수는 공시 후 이틀 내에 FA를 신청한다. FA 신청이 마감되면 KBO는 승인 선수를 공시하고 그 다음 날부터 FA 협상이 시작된다. FA는 원소속구단과 일주일 동안 우선 협상을 하고, 이후 일주일 동안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과 접촉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FA는 한국시리즈가 끝나고 3주 정도가 지나야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프리미어 12는 11월 8일에 개막해 21일에 끝난다.

KBO 운영팀은 최근 10개 구단 운영팀장과 프로야구선수협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9월 내로 2016년 FA 협상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알렸다.

11월 23일로 계획한 2차 드래프트도 뒤로 밀릴 전망이다. 2차 드래프트는 외국인, 신인, FA를 제외한 40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빠진 선수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4년만에 US오픈 우승

3개 메이저대회 독식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4천230만 달러) 남자단식을 제패했다.

조코비치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서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를 3-1(6-4 5-7 6-4 6-4)로 물리쳤다.

2011년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패권을 탈환한 조코비치는 우승 상금 330만 달러(약 39억원)를 받았다. 조코비치는 또 올해 호주오픈과 윔블던에 이어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3개 대회를 독식했다. 프랑스오픈에서는 준우승했다.

조코비치가 한 해에 메이저 3승을 거둔 것은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조코비치는 당시에도 프랑스오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회를 휩쓸었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서 5차례, 윔블던에서 3차례 우승했으며 US오픈은 2차례 제패해 메이저 대회에서 총 10차례 정상에 올랐다. 이날 경기 결과로 조코비치와 페더러의 상대 전적은 21승21패로 균형을 이뤘다.

또 조코비치는 메이저 대회에서 10승을 달성한 8번째 선수가 됐다. 메이저 최다 우승은 페더러의 17회고 현역 선수로는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14번 우승해 피트 샘프러스(미국)와 메이저 최다승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2009년 준우승 이후 6년 만에 이 대회 결승에 다시 오른 페더러는 2008년 이후 7년 만에 US오픈 우승을 노렸으나 올해 윔블던에 이어 또 조코비치의 벽을 또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